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틀린 답을 올리면 정답이 온다, 커닝햄의 법칙(Cunningham's Law)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560/>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거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을 올리면 한참 동안 아무도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엉터리 답을 자신 있게 적어 두면, 몇 분 지나지 않아 “그건 틀렸습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정확한 설명이 줄줄이 달리곤 합니다. 이 묘한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인터넷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커닝햄의 법칙(Cunningham's Law)’입니다. 커닝햄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정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틀린 답을 올리는 것’이라는 경험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눈앞의 틀린 답을 바로잡는 데 훨씬 빨리 움직인다는 관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커닝햄의 법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사람들이 틀린 답에 반응하는 이유, 이 법칙이 드러나는 장면, 그리고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답이 정답을 부르는 커닝햄의 법칙 커닝햄의 법칙은 어디서 왔을까 이 법칙은 이름의 주인공보다 그 말을 기억한 동료 덕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1) 위키를 만든 프로그래머법칙의 이름은 미국의 프로그래머 워드 커닝햄(Ward Cunningham)에게